

고수온 재난 예·경보 '심각 I' 단계 발령

- 서·남해 내만 등 6개 해역 고수온 경보, 18개 해역 주의보 발표

해양수산부(장관 황종우, 이하 “해수부”)는 7월 30일(목) 18시부터 고수온 재난 예·경보* ‘심각 I’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.

*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 : 관심 → 주의 → 경계 → 심각 I 단계(현재단계) → 심각 II 단계

이는 국립수산물과학원이 같은 날 16시를 기해 서·남해 내만 등 6개 해역에 고수온 경보*를, 16개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**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.

* 경보: 해역의 수온이 28℃에 도달하여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

** 주의보: 해역의 수온이 28℃에 도달하였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

‘심각 I’ 단계 발령에 따라 기존에 수산정책실장이 운영하던 비상대책반은 해수부 장관이 지휘하는 비상대책본부로 격상된다. 해수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조기 출하 및 긴급 방류 독려, 고수온 대응장비 총동원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, 현장점검 확대를 통해 사육밀도 조정, 사료 공급 중단 등 양식장 관리요령을 홍보하는 현장 지도도 시행할 예정이다.

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“해양수산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 출하, 긴급 방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.”라며, “어업인들께서는 국립수산물과학원이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*를 참고하여 사료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대응장비를 가동하는 한편,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해 온열질환 예방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.”라고 밝혔다.

* 국립수산물과학원 누리집 ‘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시스템’(www.nifs.go.kr/risa/)에서 최신 수온정보 확인 및 수온정보 문자 수신 서비스 신청 가능

담당 부서	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기원 (051-773-5610)
		담당자	사무관	김 환 (051-773-5392)
			주무관	남정희 (051-773-5621)
	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	책임자	과 장	한인성 (051-720-2210)
		담당자	연구관	김형철 (051-720-2750)
			연구사	이시우 (051-720-2751)
			연구사	박태규 (051-720-2752)